

국민 대다수(92%), 연명의료 중단 의향 있다!

한국 사회에서 죽음은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애 말기와 죽음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보고서(2024.12.)에는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의 '죽음에 대한 인식' 결과가 담겨있는데 해당 자료를 중심으로 이번 넘버즈를 구성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연령이 높을수록 무의미한 수명 연장보다는 존엄한 죽음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2%에 달했다.

이번 <넘버즈 280호>에서는 한국인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하는지를 살펴보고, 좋은 죽음을 위한 조건과 사회적 지원, 제도적 논의를 조망하려고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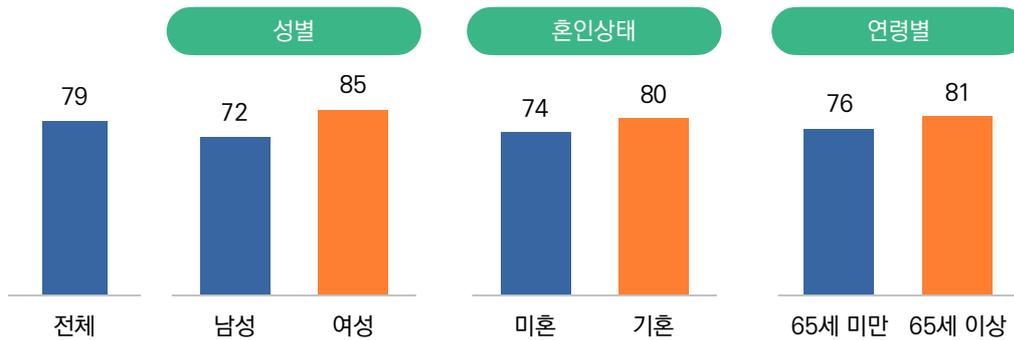
01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

65세 이상 국민 81%,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상상해본 적 있어

- 사람들은 평소 자신의 죽음에 관해 생각할까? 본인의 죽음이나 생애 말기의 상황, 그때의 치료 계획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일반 국민 10명 중 8명꼴(79%)로 '가끔 생각해본 적이 있거나 자주 생각하곤 한다'고 응답했다.
- 특히 여성(85%)이 남성(72%)보다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상상하며, 기혼(80%)인 경우 미혼(74%)보다 죽음을 생각해 본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65세 이상(81%)이 65세 미만(76%)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본인의 죽음이나 생애 말기의 상황, 그때의 치료 계획을 상상해 본 경험 (일반국민, '가끔+자주 생각하곤 한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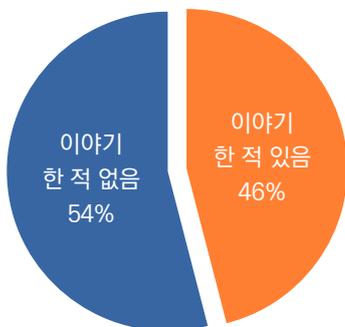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2024.12.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 온라인 조사, 2024.04.23.-05.07.)

*4점 척도

국민 절반 가까이, 죽음이나 생애 말기 상황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 해 봤다!

- '자신의 죽음에 대해 가족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6%)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가족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42%로 나타났다.
-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족과 함께 죽음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은 죽음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림] 죽음이나 생애 말기의 상황, 치료 계획에 대해 부모, 자녀, 배우자 등 '가족에게' 이야기한 경험 (일반국민)



[그림] '가족이' 자신의 죽음이나 생애 말기의 상황, 치료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 경험 (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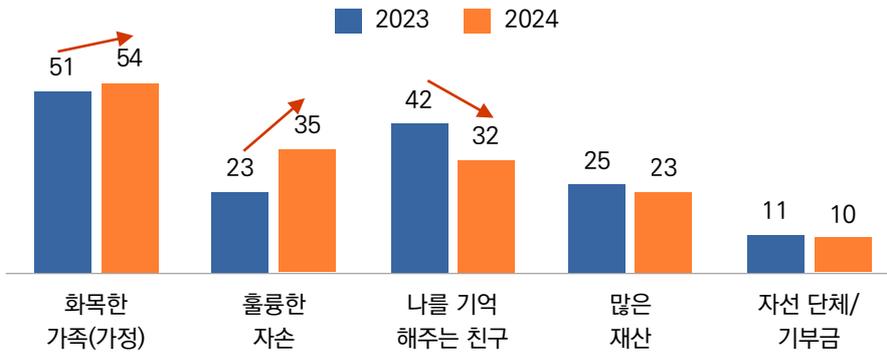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2024.12.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 온라인 조사, 2024.04.23.-05.07.)

죽은 후 남기고 싶은 것, '화목한 가족', '훌륭한 자손'!

- 죽은 이후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화목한 가족'(54%)이 가장 높았고, 이어 '훌륭한 자손'(35%), '나를 기억해주는 친구'(32%), '많은 재산'(23%) 등의 순이었다.
- 2023년 동일 조사 비교했을 때 '화목한 가족'과 '훌륭한 자손'을 꼽은 비율이 증가한 반면 '나를 기억해주는 친구'의 응답률은 감소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이 강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죽은 후 남기고 싶은 것 (일반국민, 중복응답, 상위 5위, %)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4 연명의료결정법 및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관련 인식 조사, 2024.11.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10.25.~10.28.)

02

[좋은 죽음의 조건]

좋은 죽음이란, '신체적 고통 없고', '가족의 부담 줄이는 것'!

-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 좋은 죽음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중요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매우 중요하다' 의견 기준으로 '가족이 나의 간병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65%, '가족이 나의 병수발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것' 65%이었고, 다음으로 '죽을 때 신체적인 통증을 가급적 느끼지 않는 것' 57% 등의 순이었다.
- 이는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과 '고통 없는 죽음'이 좋은 죽음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의 중요도 (일반국민, '매우 중요하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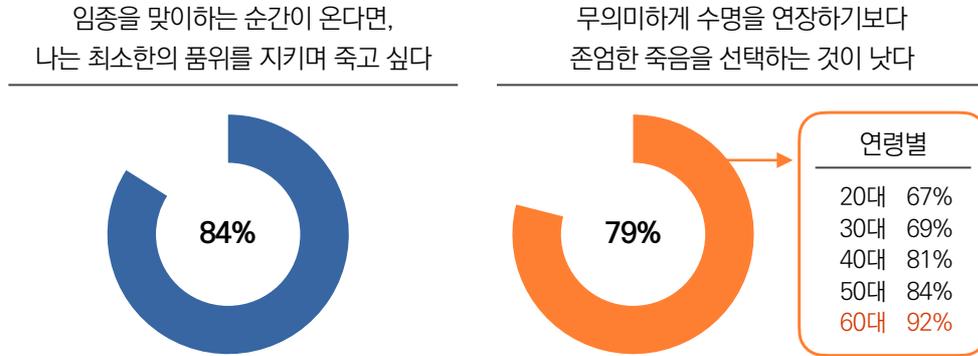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2024.12.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 온라인 조사, 2024.04.23.~05.07.)

*4점 척도

고연령층일수록 무의미한 수명 연장보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 높아!

- 사람들은 어떤 죽음을 원할까? 국민 대부분(84%)이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이 온다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죽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무의미한 수명 연장보다는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에 대한 동의율도 79%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원하는 죽음의 형태 (일반국민, '그렇다'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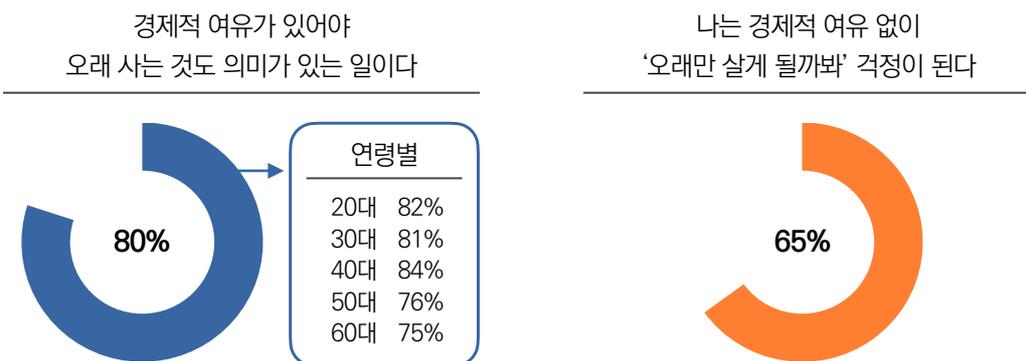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4 연명의료결정법 및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관련 인식 조사, 2024.11.(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10.25.~10.28.)

*2점 척도

우리국민 3명 중 2명, 경제적 여유 없이 '오래만 살게 될까봐' 걱정된다!

- 삶에서 경제적 여유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살펴본다. 먼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오래 사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에 국민 10명 중 8명이 동의했고, 특히 40대 이하 저연령층에서 동의율이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 또, '경제적 여유없이 오래만 살게 될까봐 걱정된다'는 응답도 65%로 3명 중 2명 정도였다. 이는 경제적 안정이 단순한 생활의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죽음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경제적 여유와 삶의 의미 (일반국민, '그렇다' 비율*)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4 연명의료결정법 및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관련 인식 조사, 2024.11.(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10.25.~10.28.)

*2점 척도

좋은 죽음을 위한 필요 서비스, '생애말기 기간 중 통증 완화'

-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지 묻은 결과, '생애말기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통증 완화'를 꼽은 비율이 63%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생애말기 환자의 치료 비용 지원' 57%, '생애말기 환자 및 가족의 심리 및 정서적 지원' 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속, 유언장 작성 사전 준비 및 설계 지원'은 29%로 가장 후순위였다.
- 신체적 돌봄을 비롯해 경제적, 정서적 지원까지 앞서 언급한 좋은 죽음의 조건이 곧 좋은 죽음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일치했다.

[그림]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일반국민,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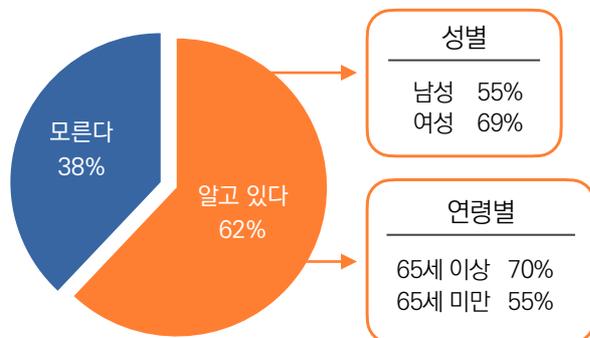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2024.12.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 온라인 조사, 2024.04.23.~05.07.)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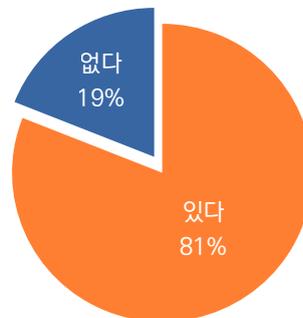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제도적 논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의향, 81%!

- 말기 환자 등 죽음을 앞둔 이들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대표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 조력존엄사인데 참고로 조력존엄사는 아직 해외 일부 국가에서만 행해지고 있다.
- 먼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Note 참조)를 알고 있는지 묻은 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69%)이 '남성'(55%)보다, '65세 이상'(70%)이 '65세 미만'(55%)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국민의 81%가 '있다'고 응답해, 추후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향이 높음을 나타냈다.

[그림]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운영 인지도* (일반국민)



[그림] 말기 및 임종기 환자가 되었을 때,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의향 (일반국민)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2024.12.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 온라인 조사, 2024.04.23.~0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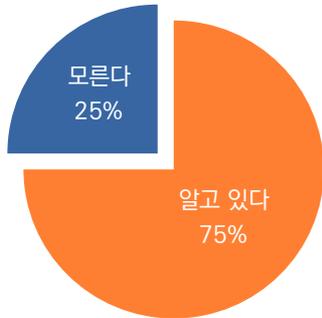
*4점 척도

Note)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통증, 호흡곤란, 복수 등 환자의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임.

국민 대다수(92%), 연명의료 중단 의향 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Note 참조) 운영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5%로 앞선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62%)보다 인지율이 더 높았고, 말기 및 임종기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향을’ 또한 대다수 국민(92%)이 있다고 응답해 해당 제도에 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림]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인지도* (일반국민)



[그림] 말기 및 임종기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향 (일반국민)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2024.12.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 온라인 조사, 2024.04.23.~0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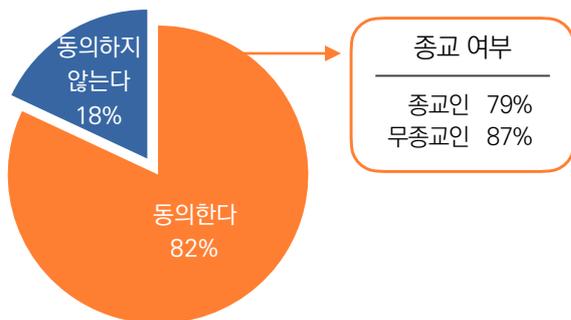
*4점 척도

Note)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남겨두어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함.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 합법화, 국민 82%가 동의!

- 이번에는 ‘조력존엄사 합법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전체의 82%가 동의했고, 종교 여부로 보면 ‘무종교인’(87%)이 ‘종교인’(79%)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그림]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2024.12.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 온라인 조사, 2024.04.23.~0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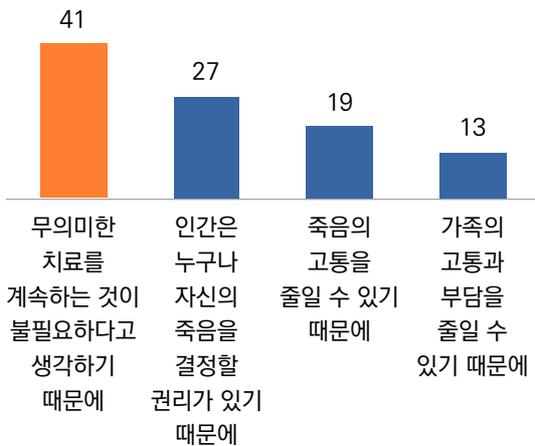
*4점 척도

Note) 조력존엄사란 의사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약물을 조력존엄사 대상자에게 처방하고 대상자가 복용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종결하는 적극적 형태의 안락사로, 의사조력자살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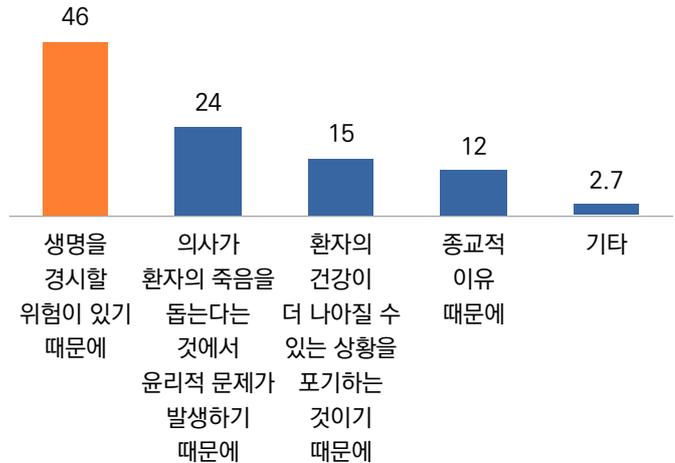
조력존엄사 합법화 찬성 이유: 무의미한 치료 지속 불필요!

- ‘조력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를 가장 높게 꼽았고, 다음으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결정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등의 순이었다.
- 반면 ‘조력존엄사 합법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생명을 경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돕는다는 것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등을 꼽았다.
- 조력존엄사에 대한 찬반 논의는 개인의 선택권 존중과 윤리적 가치 사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가가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그림] 조력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이유
(조력존엄사에 찬성하는 자, %)



[그림] 조력존엄사 합법화에 반대하는 이유
(조력존엄사에 반대하는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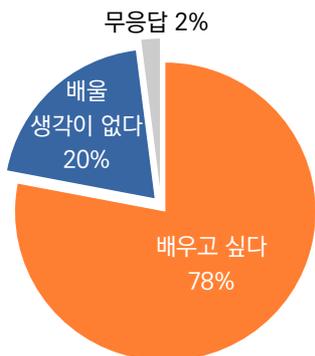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2024.12.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 온라인 조사, 2024.04.23.~05.07.)

04 [고령 교인의 죽음 인식] 고령 크리스천 78%, 교회에서 죽음에 대한 교육 받고 싶다!

- 「한국교회트렌드 2025」의 ‘고령 교인 조사 결과’ 중 죽음 교육 관련 항목을 살펴본다. 교회에서 죽음에 대한 강의나 교육을 한다면 배울 의향이 있는지 65세 이상 고령 교인에게 물은 결과, 10명 중 8명 가량(78%)은 ‘배우고 싶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고령 교인이 ‘죽음 교육’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웰다잉에 대한 고령 교인들의 관심과 욕구를 반영하여 교회에서도 죽음을 준비하는 크리스천 과정반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림] 죽음에 대한 교육 받을 의향 (65세 이상 기독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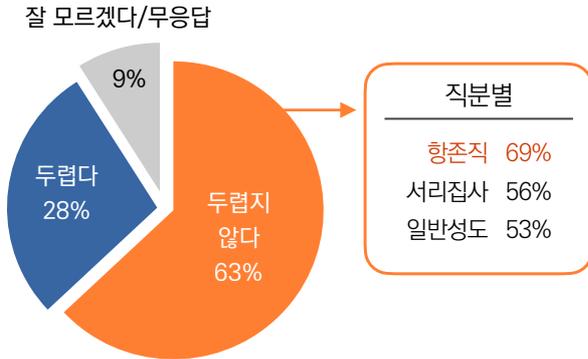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트렌드 2025」 ‘고령 교인 신앙과 시니어 목회 실태’, 2024.07.31.(만 65세 이상 기독교인 1,500명, 모바일 조사/종이 설문지 자기 기입식 조사 병행, 2024.05.01.~06.12.)

고령 교인 10명 중 6명 이상, 죽음이 두렵지는 않다!

- 이번에는 고령 교인들이 죽음에 대해 얼마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고령 교인(65세 이상)에게 죽음에 대해 두려운지를 묻은 결과, '두렵지 않다'가 63%로 '두렵다'(28%)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직분별로 보면 '항존직'(69%)이 '일반 성도'(53%)나 '집사'(56%)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신앙(수준)과 어 느정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는 정도* (65세 이상 기독교인)



※출처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아드폰테스/목회데이터연구소, '고령 교인의 신앙 생활 및 인식조사', 2022.08.05.(만 65세 이상 기독교인 2,045명, 모바일 조사/중이 설문지 자기 기입식 조사 병행, 2022.05.18.-06.28.)

*4점 척도

이번호 요약

1. 좋은 죽음이란, '신체적 고통 없고, 가족의 부담 줄이는 것'

-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 '매우 중요하다' 의견 기준으로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가족이 나의 간병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65%)과 '가족이 나의 병수발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것'(65%)이 가장 높았고, '죽을 때 신체적 통증을 가급적 느끼지 않는 것'도 57%로 나타났다.

2. 죽은 후 남기고 싶은 것, '화목한 가족', '훌륭한 자손'

- 죽은 후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묻은 결과, '화목한 가족'(54%)이 가장 높았고, 이어 '훌륭한 자손'(35%), '나를 기억해주는 친구'(32%) 등의 순이었다.

3. 국민 대다수(92%), 연명의료 중단 의향 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에 대한 인지율은 75%였고, 말기 및 임종기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향률'은 92%로 국민 대다수가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갖고 있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살아 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 (웅진지식하우스, 이호)

관련 성경 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목회 적용점

기독교인에게 죽음은 무엇인가? 기독교는 죽음을 끝이 아닌 영원한 삶의 전환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준비의 기회로 바라보게 한다.

이번 조사에서 좋은 죽음의 조건으로 비교적 높게 응답된 항목을 살펴보면 '가족이 나의 간병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고', '내 병수발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죽을 때 신체적 고통 느끼지 않는 것' 등이었다.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신체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다만 크리스천이라면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 비기독교인이 '자기중심적인 죽음 준비'를 거행할 때, 기독교인은 더 나아가 '말씀에 비추어 인생을 되돌아보고, 평가하고, 정리하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웰다잉은 잘 죽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과정이다.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가족 간의 관계 회복과 감정을 정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생을 회고하며 미움, 슬픔, 분노, 감사 등을 표현하고, 용서와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교회는 웰다잉 사역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죽음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장례 지원, 유언 준비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죽음 준비 교육, 용서와 화해의 예배 등 영적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다. 웰다잉 사역은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